# 빼어난 용병술·탄탄한 팀워크…이젠 강팀으로 불린다

## 올 시즌 준우승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창단 후 최고 성적 비결은

###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 강경민·원선필 '시즌 베스트 7'
### 신인 송혜수·골키퍼 박조은 맹활약
### 아시안게임 대표 후보에 6명 뽑혀

### 광주도시공사 든든한 지원 시스템
### 시체육회·협회도 '그림자 지원'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선수단이 2021-2022 SK핸드볼코리아리그 준우승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핸드볼코리아리그에 존재감을 아로새겼다.

지난 시즌과 올시즌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데 이어 올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정상을 밟진 못했으나 2010년 창단한 광주도시공사는 만년 꼴찌팀의 오명을 벗고 강팀으로 변모했다.

광주도시공사의 환골탈태를 이끌어낸 주역은 오세일 감독이다. 리그 동안 선수단에서 무려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2경기를 몰수패한데다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오세일 감독의 빼어난 용병술과 선수단의 팀워크로 난관을 극복하고 챔프전 준우승을 일궈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탄탄해지는 팀 컬러도 주목받았다. 1라운드 3승 4패, 2라운드 4승 3패, 3라운드 6승 1패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탔다. 이어 창단 이래 정규리그 최고 성적인 13승 8패(승점 26)를 일궈내며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오세일 감독은 "2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고 올해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올시즌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에서 경기력 보강으로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전들의 꾸준한 자기관리와 컨디션 유지도 팀 전력에 밑거름이 됐다. 강경민(CB)과 원선필(PV)은 이번 '시즌 베스트 7'에 선정될 정도로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광주도시공사는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참가후보 선수로 무려 6명이 뽑혀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박조은·김지현·강경민·송혜수·정현희·원선필 등 6명이 국가대표 최종낙점을 기다리고 있다.

올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입단한 송혜수와 코트에 복귀한 골키퍼 박조은은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골키퍼이자 팀의 맏언니 손민지는 SK 슈가글라이더즈전에서 1500세이브를 달성하는 등 팀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광주도시공사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시스템도 성적을 일궈내는 데 한 몫했다.

광주도시공사의 위탁을 받아 핸드볼팀을 관리하고 있는 광주시체육회를 비롯해 광주시핸드볼 협회 등은 '그림자' 지원에 나섰다.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핸드볼선수단 단장),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 등은 '핸드볼 운영위원회'를 꾸려 전력 향상방안, 선수 스카우트 등 구단 운영 등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충장베이스볼클럽, 광주 대표로 소년체전 간다

## 대신육가공회장배 야구대회 우승

충장베이스볼클럽 선수단이 제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겸 제 9회 대신육가공회장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 협회 제공〉

충장베이스볼클럽(충장BC)이 제 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대표 자격을 얻었다.

충장BC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대회 겸 제 9회 대신육가공회장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충장BC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순창팔덕다목적경기장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무등BC와의 첫 경기를 8-3 승리로 장식한 충장BC는 동성중과의 대결에서는 10-1, 5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그리고 마지막날 진흥중과의 경기에서도 10-0, 5회 콜드게임승을 만들면서 3연승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우승으로 충장BC는 5월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

한편 초등부 대표를 가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대회 겸 제 9회 수완센트럴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4일부터 8일까지 첨단야구장에서 리그전으로 진행된다.

◇대회 시상 내역

▲우승 : 충장BC ▲준우승 : 무등BC ▲최우수선수상 : 김성준(충장BC) ▲우수투수상 : 김태승(충장BC) ▲타격상 : 황도윤(5타수4안타·0.800·충장BC) ▲최다도루상 : 한민우(2개·무등BC) ▲최다타점상 : 최상훈(6타점·충장BC) ▲감투상 : 안동규(무등BC) ▲미기상 : 손호근(무등BC) ▲감독상 : 나길남 감독(충장BC) ▲지도상 : 박우석 코치(충장BC)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서석중 검도부 춘계 전국중·고대회 준우승

광주 서석중학교 검도부 선수와 임원들이 제64회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단체·개인 준우승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시검도회 제공〉

서석중학교 검도부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서석중학교는 최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64회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부원중(인천)에 1-4로 패해 2위에 머물렀다.

서석중은 결승까지 순조롭게 진출했다. 예선전에서 주성중(충북)을 5-0으로 제압한 뒤 16강전에 부전승으로 올랐다. 이어 8강전에서 신천중(서울)을 3-1로 꺾은데 이어 4강전에서 신곡중(경기)마저 4-1로 셧아웃시켰다.

이정환(3년)은 개인 결승전에서 신정우(경기 광명중)에 0-1로 무릎을 꿇어 2위에 올랐다. 이정환은 8강전에서 백민서(가야중)을 2-0으로 꺾은데 이어 4강전에서 김연우(정읍중)에 1-1 판정승을 거두고 최종전에 진출했다. 서석중 검도부는 김태현(1년), 정우민(2년), 김기훈·오승준·채희준( 2년), 서규원·이정환·강현우(이상 3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손흥민 vs 호날두…빅매치 성사됐다

## 한국축구, 카타르월드컵 포르투갈·우루과이·가나와 한 조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16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우리나라는 2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와 H조에 속했다.

한국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1월 24일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고 같은 달 28일 가나, 12월 2일 포르투갈과 차례로 맞붙는다.

월드컵 본선에는 32개국이 참가해 4개국씩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 2위가 16강 토너먼트에 나서서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

22번째 FIFA 월드컵인 올해 대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의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0회 연속이자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우리나라는 원정 대회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오른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의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FIFA 랭킹 29위로 조 추첨에서 3번 포트에 배정됐던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 팀 만만한 상대는 없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한 조 편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번 포트에 속했던 FIFA 랭킹 8위 포르투갈은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세르비아에 이어 A조 2위를 차지한 뒤 플레이오프(PO)를 거쳐 6회 연속이자 통산 8번째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포르투갈과 이전에 딱 한 차례 맞붙었다. 2002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 조가 돼 처음 격돌했는데 박지성이 결승골을 터트려 1-0으로 승리한 바 있다. 당시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뛰었다.

20년 만에 포르투갈과의 월드컵 본선 맞대결이 이뤄지면서 '벤투 더비'가 성사됐다. 더불어 '벤투호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의 우상이라고 밝혀온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세계축구 최고의 무대에서 대결하게 된 것도 관심을 끈다.

2번 포트의 FIFA 랭킹 13위 우루과이는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카타르행을 확정했다. 월드컵 본선에는 4회 연속이자 14번째 오른다.

상대 전적에서는 우리나라가 1승 1무 6패로 열세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두 차례 만났는데 1990 이탈리아 대회 조별리그에서 0-1로 졌고, 2010 남아공 대회에서는 16강에서 격돌해 1-2로 무릎 꿇었다.

마지막 4번 포트에 있었던 FIFA 랭킹 60위 가나는 아프리카 최종예선에서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 8년 만이자 통산 네 번째 본선 출전권을 땄다.

우리나라와는 여섯 번 맞붙어 봤는데 3승 3패로 맞섰다. 최근인 2014년 6월 미국에서 치른 친선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0-4로 완패했다. 월드컵 무대에서는 이번에 처음 만난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모비우스 |
| 2관 | 모비우스 |
| 3관 |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 4관 | 모비우스 |
| 5관 | 배니싱: 미제사건 |
| 6관 | 모비우스 |
| 9관 | 뜨거운 피 |
| 7관 씨네커플 | 뜨거운 피, 극장판 주술회전 0 |
| 8관 씨네커플 | 더 배트맨, 문폴, 드라이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 2022.04.27.(수)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